

#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OECD 개발원조위 정례회의가 Manning 의장 주재로 9.22(금) 개최되었는바, 주요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I. 핵심요지

- 2007-2008 PWB에 소요되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약정이 시작되어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DAC 산하기구 개편은 기존체제를 대체로 유지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GOVNET이 상정한 반부패 정책보고서 및 반부패 공여국 행동원칙을 서면절차를 통해 승인키로 하였으며, 식량원조의 개발효과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반대로 중단됨.

- 파리클럽의 2005년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의 ODA 포함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이 부채탕감의 개발측면을 고려하여 ODA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반면, 유럽 중견국가들은 상업적 차원의 것이므로 ODA 포함 불가 입장을 고수함.

## II. 상세 논의 내용

### 1. DAC 2007-2008 PWB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VC) 약정 :

DCD/DAC(2006)38

- 2005년 '자발적 기여금 관리에 관한 DAC 합의'에 따라, DAC은 2007-2008 PWB에 대한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약정 창구 (pledging window)를 2006.9.8-10.31간

개설하고 있으며, 금번 DAC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일차 약정 발표가 있었음.

- 회원국들은 기본적으로 2007-2008 PWB 2개년에 대한 약정을 하게 되며, 지난 6.28 회의에서 10개로 통합된 자발적 기여금 구좌(Annex 1)를 적시하여, 사무국이 제시한 모델 계약서(Annex 2)에 따라 자발적 기여금 약정

- 2007-2008 PWB를 위해서 매년 약 550만 유로의 자발적 기여금이 필요

■ VC 서약 시한이 10월말까지인 관계로 상당수의 회원국의 입장이 미정으로 남아 있으나 새롭게 적용된 시스템에 맞추어 각국이 정해진 시한내에 약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지리 등은 2개년 약정액을 발표하였고, 미국, 스페인, 호주, 스웨덴 등은 자국 예산원칙상 1개년 약정액만 제시함. 여타국가들은 약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함.

- 각국의 약정액이 분야에 따라 과부족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장 및 사무국은 추후 회원국의 약정 현황표를 만들어 이를 조정하는 세션을 가질 예정

이라 함.

■ 사무국이 'Aid for Trade' 사업을 위해 무역국과 별도의 공동구좌를 만들어 관리할 것을 제시한 데에 대해 [ DCD/DAC/RD (2006)10/RD5],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예외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 DAC 산하기구 구조 개편(초안) :

DCD/DAC(2006)39, DAC/ CHAIR(2006)9, DCD/DAC/RD(2006)10/RD3

■ 6.28 DAC 회의에서 일차 논의 및 산하기구 의장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DAC 산하기구 통폐합에 관한 초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됨.(산하기구 mandate가 금년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11월 정례회의까지 완료 예정)

- 개편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6개 기구는 변화 없이 그대로 존속 : WP-STAT, WP-EFF, 평가 Network, GENDERNET, ENVIRONET, POVNET

- DAC은 동료검토, Communications, Non-DAC 공여국, 정책일관성, 원조 비구속성화, 원조확대 및 원조체제, 무역을 위한 원조를 직접 다룸

- CPDC, FSG, GOVNET의 개편
  - CPDC와 FSG 통합 방안
  - CPDC, FSG, GOVNET 모두를 포괄하는 작업반 신설 방안
  - CPDC, FSG, GOVNET와 여타 산하기구를 포괄하는 작업반 신설 방안
- POVNET에 대해서는 무역과 투자관련 이슈를 mandate에 포함시킬지 여부, 성장 측면을 강조하여 “빈곤감소 및 성장”에 관한 작업반 혹은 Network으로 명칭 변경, 원조 기관 비공식그룹을 포함할 지 여부 문의

- 능력발전에 관한 협의 과정 설치 여부

- 구조개편과 연관된 systemic issues로서 DAC이 산하기구가 너무 많아 작업 결과물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고 산하기구가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 내고 있어 DAC이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산하기구간 시너지 증진, DAC과 산하기구간 관계 명확화 이슈가 제기됨.
- 대다수 회원국은 상기 6개 산하기구의 존속 및 POVNET의 이름 존속에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CPDC, FSG, GOVNET의 개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계속 현안으로 논의키로 함.

### 3. SLM 준비(회의 의제안) :

DCD/DAC/A(2006)10의 PREVIEW

- 12.5-6간 개최되는 DAC SLM(중견급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은 일단 ①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 모니터링, ②Security 시스템 개혁체제 이행, 취약국가, 반부패, ③ HLM 의제 제안 등을 포함시키는 데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이주 문제(migration)의 의제 포함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나뉘었으며, 여타 의제는 삭제하자는 의견이었음.

### 4.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

COM/DCD/DEV(2006)2, DAC/CHAIR (2006)10

- 2006-2009년간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잠정일정
  - 2006.12.4-5 OECD/WB Policy Workshop(‘Global Programmes and the Paris Agenda’)
  - 2007.4.3 제1차 글로벌 포럼(‘Policy Reform Options for Effective Development Finance’)
  - 2008년 봄 제2차 글로벌 포럼
  - 2009년 봄 제3차 글로벌 포럼

## 5. 2007년도 DAC HLM(회의 일자)

- 2007년도 DAC HLM 회의 일자를 4.3-4로 확정(4.3 만찬부터 시작)

## 6. 반부패 :

DCD/DAC/GOVNET(2006)3/REV1,  
DCD/DAC(2006)40

- GOVNET은 “반부패에 관한 정책보고서” 및 “반부패 관련 공여국 행동원칙”에 합의 하고 DAC에 승인을 요청
- 대다수 회원국들은 상기 문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의장은 서면절차를 통해 승인토록 하고 12월 SLM에서 논의를 위해 사무국이 요약문을 작성토록 함.

## 7. 파리클럽의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의 ODA 포함 문제 :

DCD/DAC(2006)41

- 2005년 파리클럽의 나이지리아 부채탕감을 ODA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지난 2월 DAC 통계작성반에서 일차 논의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부채탕감이 개발을 위해 이루어 졌다는 측면에서

ODA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반면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화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및 호주는 부채탕감이 상업적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ODA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오스트리아, 스페인, 영국은 나이지리아 사례에 한하여 ODA 포함을 지지함.

- 금번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는 없었으며 의견 대립의 양상을 보였음. 이에 따라 의장은 현재의 대립된 양측 입장을 그대로 보고예정이며, 11월중 추가 협의를 진행 예정이라고 함.

## 8. 식량원조의 개발효과 연구에 관한 Terms of Reference :

DCD/DAC(2006)31/REV1

- 사무국은 식량원조의 개발효과 연구에 대해 미국이 반대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미국은 식량원조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DAC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다루어야하는 문제로 동 사업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